



## “제주 여행 전에 멤버십 챙기세요”

9월 1일까지 여행 플랫폼 ‘나우다’ 서울 팝업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제주 공식 여행멤버십 ‘나우다(NOWDA)’ 브랜드 팝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팝업은 ‘먼저 만나는 제주’를 콘셉트로, 아직 제주를 방문하지 않은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환대를 미리 전하고, 나우다의 다양한 혜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우다 브랜드 경험존’과 ‘제주 로컬브랜드 큐레이션존’으로 구성됐다.

‘나우다 브랜드 경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여행멤버십 나우다의 이용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나우다 회원 가입부터 QR 인증, 포인트 적립 등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3개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리워드(보상)존에서

나우다 굿즈와 제주 지역화페인 탐나는전,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제주 로컬브랜드 큐레이션존’에서는 제주 로컬 콘텐츠 플랫폼 ‘소길별하’와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28개 브랜드의 130여 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식음료와 리빙, 라이프스타일 등 제주의 고유한 가치와 감성을 담은 제품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게 운영된다.

나우다는 여행객에게 도내 제휴처 이용 혜택과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주도 여행멤버십 서비스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약 33만명이며, 도내 290여 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여행객에게 제주 곳곳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연결하는 여행 플랫폼 역할을, 제휴사에는 관광객 유입과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여행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저금리 대출 ‘제주형 포용금융’ 9월 시행

제주도-제주은행-신협중앙회 업무협약

신용과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저금리 소액대출과 저축 지원을 묶은 ‘제주형 포용금융’이 9월 중에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제주 상생포용적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소액대출 사업으로 적은 돈이 급해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향하는 도민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주 상생포용적금’은 금융취약계층이 저축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 폭염·가뭄 속 당근 미발아 ‘보험 사각지대’

재해보험 가입 2025년부터 발아율 80%로 기준 강화  
주산지 구좌지역선 20%정도 발아 안돼 보험 가입 못해  
농가들 “기후위기 속 여름철 파종 작물 현실 감안해야”

제주가 주산지인 당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이 출현율(발아율) 80%로 강화되면서 재배농가들이 기준 완화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에 촉구하고 있다. 당근 파종기가 한여름과 겹치는 만큼 폭염과 가뭄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4일 농협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당근의 보험 가입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국지성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제주 농업 현장을 덮치고 있다”며 “그런데 한여름 당근 씨앗 파종 직후 생육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험에서 제외하고, 일정 수

준 이상 짝이 나온 농지만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재해 위험을 국가와 농협손해보험이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가 주산지인 당근의 농작물재해보험은 2023년까지만 해도 파종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다른 씨앗 파종작물의 보험 가입 기준이 출현율 80%라며 2024년부터 당근과 월동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근 농가들의 반발에 2024년에는 출현율을 50%로 유예했고, 2025년부터는 출현율 80%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당근의 경우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여름에 집중적으로 파종되는 작물이라는 점이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 농가들이 물과의 전쟁을 치르며 겨우 파종을 마쳤지만, 출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농경지는 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4일 농협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근의 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미숙기자

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9월 4일까지인 당근 재해보험의 24일 기준 가입 실적은 900건·762ha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88건·1579ha와 비교하면 가입 면적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부 농가가 다른 품목 재배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출현율 8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근 최대 주산지인 구좌농협 김희준 경제상무는 “당근 파종은 대부분 마쳤지만, 오랜 가뭄으로 물

을 계속 대고 건조가 반복되면서 흙 표면이 딱딱하게 굳는 경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이달 중순 집중호우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파종한 씨앗까지 함께 유실돼 약 20%의 농경지가 미발아 상태”라고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당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출현율 50%로 완화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지만 발작물의 경우 80% 출현율이라는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입장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도 제주 현실을 반영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인천~제주 이용 단체객에 관광협회, 탐나는전 지원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는 인천~제주 직항 노선 활성화를 위해 이 노선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에게 탐나는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이 노선 운항 종료일인 10월 24일까지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인천~제주 직항노선을 이용해 제주를 방문하는 1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사전 신청을 통해 1인당 5만원의 탐나는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단체의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원이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며, 제

주 도착 후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탑승권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

기준에 시행 중인 ‘제주 방문 단체관광객 탐나는전 지원사업’은 계속 운영되지만, 공고별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제주 직항노선은 제주 방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주항공이 올해 5월 12일부터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2016년 운항이 중단됐던 정기 노선이 10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제주항공은 당초 석 달간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수준의 수요가 확인되면서 운항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했다. 문미숙기자

## “국민 먹거리·농어민 생존권 지켜야”

한농연도연합회, 국회서 CPTPP 검토 철회 촉구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이하 한농연도연합회)는 24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철회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농연도연합회는 이날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각 시·도연합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각 시·도연합회 소속 농어민 300여 명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강승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먹거리 주권·농어민 생존권 사수! CPTPP 가입 저지 긴

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어업 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CPTPP 가입을 농어민과의 협의 없이 추진한다면, 이는 정부가 강조해 온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정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어민의 생존권,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CPTPP 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CPTPP 가입 검토 중단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확대 ▷통상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문미숙기자

📶 제주도정소식

비타민 가득 제주 풋풋! 싱거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풋갈 출하기간: 8. 1. ~ 9. 15.까지)

제주소방, 추석 전 최초시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발령일자: 2026. 8. 21.(금)

○ 발령사유

- 최초시기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발생건수 증가 예상
- 범죄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 및 사전대비 필요
- 관계부서와 유관기관·단체를 연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 최근 5년간 사고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발생건수   | 178 | 43    | 32    | 38    | 33    | 32    |
| 남성     | 147 | 38    | 27    | 33    | 28    | 21    |
| 여성     | 31  | 5     | 5     | 5     | 5     | 11    |
| 인명피해   | 178 | 43    | 32    | 38    | 33    | 32    |
| 사망     | 0   | 0     | 0     | 0     | 0     | 0     |
| 부상     | 178 | 43    | 32    | 38    | 33    | 32    |
| 기계·기구  | 78  | 26    | 16    | 12    | 9     | 15    |
| 동식물    | 10  | 2     | 4     | 0     | 3     | 1     |
| 낙상·부딪힘 | 29  | 6     | 2     | 10    | 6     | 5     |
| 온열질환   | 13  | 3     | 4     | 3     | 3     | 0     |
| 신체적요인  | 48  | 6     | 6     | 13    | 12    | 11    |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강경아(710-3533)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알림

○ 사업개요

- 사업량: 2개소
- 개소당 사업비: 2억 2,300만 원(보조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농업 R&D 기술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 또는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팅 및 창업 기반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

\* R&D 기술성과

- 특허기술: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www.nati.or.kr) → 특허정보검색
- 영농활용기술: 농사로(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최신영농활용기술

○ 사업유형: 신기술, 가공·상품화, 융복합, 체험·치유·관광

○ 신청자격

- 농업인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법인
-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으로 농업 R&D 기술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창업을 추진하는 단체

\* 품목모임체: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법적근거가 있고 승인된 단체로 청년농업인 5인 이상 구성

○ 접수기간: 2026. 8. 18.(화)~8. 3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1층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

○ 문의: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760-7524)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agri.jeju.go.kr) 참고

2026년 하반기 도민로소쿨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2026. 9. 1.(화) ~ 10. 29.(목)

○ 교육장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시 서사로 43)

○ 교육내용: 생활 밀접한 법 이론 및 사례 등 법률 교육(8과목 29강좌)

- (A반) 부동산거래 법률상식, 금전·상속·유언 법률상식, 신종 디지털범죄 예방 및 법률상식
- (B반)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식, 소비자 보호법, 대한민국을 바꾼 판례 이야기
- (C반) 세법상식, 근로기준법 상식

○ 신청방법: 제주도민대학 누리집(https://www.jejudomin.kr/)에서 신청

○ 신청기간: (A반) 8.10.~8.28. (B반) 8.10.~9.14. (C반) 8.10.~10.7.

○ 문의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 (☎064-726-9851)

🌱 주간 농업농촌소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작은 실천 ‘물·그늘·휴식’

태풍 등 강한 비바람 피해 대비

○ 시설 하우스

- 비닐 고정관·비닐축점 점검 및 보강, 비상발전기 점검
- 환풍기 등 전기시설 사전 점검

○ 시설 내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설 및 주변 배수로 재정비

○ 공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재정비

\* 침수 피해 발생 시 수세 약화, 역병 등 병해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맑은 날을 택하여 사전에 적용약제 살포

○ 노지감람

- 강한 바람에 많은 비가 동반될 경우 48시간 이내 제방병 또는 검은점무늬병 적용 약제 살포
- 고점 생산한 나무는 지주대와 함께 단단히 고정
- 토양피복재는 강풍에 날라가자 빗물에 쓸리지 않도록 잘 고정

고온기 농작물 관리요령

○ 응애류, 총채벌레류 등 해충 밀도 증가가 우려되므로 정기적인 예찰에 따른 적기 방제 필요

- 고온기 약해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이른 아침에 농약을 살포하며, 약제 살포 시 3층 이상 혼용 지양

○ 관수 및 방초매트·부초 등 토양피복재제를 덮어 토양 수분 증발·지온상승 억제

○ 관수 또는 농작 살포에 사용했던 호스 내부의 물이 고온에 뜨겁게 달궈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물을 충분히 배출 후 사용

○ 시설재배 작물은 하우스를 최대한 개방하여 환기 철저

- 고온기 온도 저감을 위해 에어포그, 공기교반기, 해가림 시설 활용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감굴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굴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론 ● 제라논

※ 포트묘목 생크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굴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